

The background of the slide is a solid dark blue. Overlaid on this are several large, curved, semi-transparent shapes in a lighter shade of blue, creating a sense of movement and depth. At the bottom of the slide, there is a horizontal red bar that spans the entire width. The title text is positioned just above this bar, centered horizontally.

# 중국대학의 개혁과 변화의 방향

## '예지다쉐'(野鷄大學) 또는 '쉬자다쉐'(虛假大學)

- 바이두, 민간교육서비스 사이트 '상다쉐왕'(上大學網): 짝퉁 대학 명단을 발표, 2013년부터 짝퉁 대학을 조사, 공개해 옴 (작년보다 71개+401)
- 인터넷 상에서 모집, 부실한 인터넷 강의, 가짜 졸업장을 수여
- 짝퉁 대학은 중국 내 16개 성(省)에서 적발
- 베이징(23곳)이 가장 많았으며 산둥(山東) 8곳, 상하이(上海)·쓰촨(四川)이 각각 7곳
- 중국에서 합법적 대학의 주소는 '.edu.cn'
- '칭다오(靑島)화교이공학원'

## 가오카오(高考) 준비중인 학생들



- 최근 중국 대학입학시험에서 漢語(중국어)시험점수의 비중을 늘이고 영어점수를 낮추었지만

여전히 영어연수열풍은 식지 않고 있다

중국정부의 대학정책과 현실의 괴리 문제...

# 영국 '타임즈 하이어에듀케이션' 2016년 대학평가



세계 100위 안의 대학 내의 중국대학

- 칭화대(清华大学)- 18위
  - 베이징대(北京大学)- 21위
  - 상하이자오통대(上海交通大学)-71위
  - 푸단대(复旦大学) – 80위
  - 저장대 -81위~90위권에 진입
  - 세계 100위 대학
- 1위 미국의 하버드대  
2위 매사추세츠공대(MIT)  
3위 스탠포드

이외 케임브리지, 옥스포드, 캘리포니아대 버클리분교, 프린스턴, 예일대, 컬럼비아대, 캘리포니아공대

아시아에서 순위가 가장 높은 대학은 도쿄대로 12위  
일본, 한국, 싱가포르, 중국 포함 -18개 대학이 포함  
**대학의 높은 순위 큰 비중- 서구 특히 미국의 대학이 차지**

**무엇이 일류대학인가?**

- 요시미 순야, <대학이란 무엇인가>

- 빌 레딩스 <페허 속의 대학>

---1960년대 과도한 평등주의 배경 - 수월성(**excellence**)

1980년대 이래 세계로 번져감(신자유주의)

국가는 글로벌한 관료제적 경영체제를 목표로

모든 활동을 시장으로 통합해 감, 융통성과 혁신도 인정

국가의 수월성 세법이 대학의 시장화, 대학의 자유추구를 생각하도록



# 중국대학의 역사

- 1949- 총 227개 대학
- 1953- 181개로 조정
- 1.5계획-100만명의 전문인력 양성(이공계)
- 문혁기- 대학 문 닫음(1966-1977)
- 개혁개방- 1983년 덩샤오핑 교육 현대화 주장- 이공계중심의 인력양성을 벗어나 다양하고 창의적 인재 양성모색
- 교육체제의 다양화 모색
- 1993년 장쩌민 체제 <中國教育改革和發展綱要>(강요)

## 현대중국의 대학

- 1990년대부터 '과학과 교육에 의한 국가 부흥 科教興國'
- 1998년 대학 진학률 9.76%에서 2012년 30%
- 2015년: 고등교육 학생 수가 3700만명으로 세계 1위  
각종 대학은 2852개로 세계 2위

-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211공정 시작(1993)
- 2003년까지 95개 대학이 211공정대학으로 선정
- 집중적지원
- 학생모집과 졸업생 분배 문제를 개혁- 시장화1997
- 1998년- 985공정 10개 대학에 더 집중투자, 칭화대, 베이징대, 푸단대 등을 세계일류대학으로 만들고자
- 985공정내에 교수당 학생수 12명, 계획경제시대의 좁은 전공, 인문소양의 박약 등의 해소를 주장



- 2010년 5월 5일

국무원 총리 원자바오가 「국가중장기교육개혁과 발전계획 강요(2010 - 2020년)」- 대학제도개혁, 입시제도개혁, 질과 양의 제고 모두를 중시, 인력자원의 강대국 모색

13 5계획- 외국학생의 유치관리, 공자학원 확산  
핵심인재- 천인, 만인계획, 장강학자 장려 계획

# 국가주도하의 교육정책

- 13.5계획(2015.10)- 2020년까지(첫번째 백년,공산당창당) 교육관련- 14편 59장의 세부내용
- 첫째, 직업교육과 산학협력의 추진.
- 둘째, 학습형 사회 건설.
- 셋째, 교육개혁의 활력 증강.
- 넷째, 교육개혁의 심화.
- 다섯째, 대학의 창조적 인재 배양 능력의 제고.

# 중국대학과 국가, 사회

- 135 가운데 대학교육관련 내용- 정부주도, 효율성?, 엘리트, 대중화
  - 학교의 내부관리 구조
  - 일류 교사 집단을 양성
  - 대학의 종합적인 개혁( 우수 학과, 인재배양 시스템을 개혁, 학술인재와 응용인재의 분류를 실행, 통식교육과 전공교육의 결합을 통한 창의성 배양)
  - 세계일류대학, 일류학과
  - 중서부 고등교육 진흥계획
  - 산학협력과 산업과 교육의 융합을 추진
  - 취업우선 전략, 창업지원 정책을 갖추며 창업지원 센터를 건립

## 쌍일류공정과 통식교육(通識教育)

- 2020- 약간의 대학과 학과를 세계일류에 진입
- 통식교육- 1995년 국가교육위원회 ‘문화소질교육시점공작회’
  - 1998(교육부-대학생문화소질교육강화에 관한 의견),
  - 1999(제3차 전국교육공작회의, 중공중앙국무원의 소질교육추진전면개혁심화에 관한 결정)
    - **32개**의 소질교육(전인교육)기지 건설

## 중화인민공화국 대학 정책의 결과

- 중국대학- 국가에 의한 통제와 관리
- 국가의 교육정책이 좌우
- 2001년 WTO가입이후 글로벌화 세계화의 영향
- 국가와 시장의 연합(당과 자본의 연합적 성격)
- 중국의 대학정책- 고부가가치 산업(2003년)으로의 모색  
올림픽 개최이후 G2반열 세계적 문명국가 모색  
과학기술의 산업, 경제 발전+문명국가 건설  
인재의 양성, 대학을 통해 이룩- 지식 미디어, 국가목적

- 여전한 국가의 관리와 통제
  - 선택과 집중을 통한 대학의 위계화. 빈부격차
  - 대학관리 강화로 각종 연구자원 분배의 불균형
  - 대다수의 민판대학 즉 사립대학의 상황이 열악
  - 입학, 졸업제도의 미비- 다양하지 못한 상태에서 빈부격차 지역차가 주는 문제가 발생(취업문제, 자살...)
- = 대학본연의 자율성, 공공적 역할 힘들

- 미국 대학의 급격한 변화( 네이션 하든)
- 2012년 하버드대와 MIT가 발표했던 '에드엑스(edX)' 온라인교육 사업, 온라인 MOOC 강의
  - 대학의 급격한 축소, 교수 수의 급감 등 '대학의 종언'이라는 사태 예측
- 탈국가적 대학의 수평화 , 연대?



- 대학은 국가의 공리적 목적을 위한 수단인가?
- 대학의 본질은 무엇인가? 학문의 자유, ..로부터의 자유  
진리추구의 개인적 주체성의 확립, 지식을 넘어 진리  
(지식간 네트워크의 기제와 구조, 의미와 맥락 이해가 요구)  
본질적 문제의 회복 방안의 추구  
외에 국가와 시장(자본)에서의 자율과 자유의 추구는 복합적  
으로 사고될 필요
- 대학은 사적 소유물인가? 어떤 목적실현을 위한 수단인가?  
공공성을 띤 것인가? = **철학적 성찰이 필요한 시대**

# 글로벌시대 대학은 무엇인가

- 대학 자체에 놓인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 앞서 대학이란 무엇인가 즉 대학 자체의 개념에 대해 물을 필요
- 과거 2세기 동안 존재했던 것과 다른 방식 즉 ‘교양’의 붕괴에 대해 부흥으로 회귀하는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이 요구됨-
- 대학의 공공성- 공적 투자가 이루어지는가?
- 미국(기부), 일본(3.3%), 한국(4%): 가계부담으로 충당
- 대학교육비 지출 중 공공재정 비율- 북유럽은 국가가 전액  
독일, 프랑스 80%, 일본30%

## 세계시민과 대학, 민주주의

- “국가의 경제적 이익에 목마른 나머지
- 각국과 그 교육시스템들은
- 민주주의 건전한 존속을 위해서 필요한 기술들을 가르치는 것을 방기하고 있다.
-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대부분의 나라는 곧 스스로 생각하고, 전통을 비판하고, 타자의 고통과 성취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시민들이 아니라,
- 그냥 쓸모 있는 기계들을 양산하게 될 것이다”
- 대안- 인문학과 예술교육? (마사 누스바움, 시카고대 교수)

## 이행기-새로운 교육패러다임과 대학의 새로운 탄생

- '다음 세대를 담당할 성숙한 시민'은 자신의 공동체에 강한 애정을 느끼거나 귀속의식을 가지고 나라의 제도나 문화를 계속해서 지지하는 책임감 있는 인간이어야 한다."

## 글로벌 시대- 세계시민

- 세계시민이 되려면? 주체, 전통비판, 타인공감(민주적소양)
- 우선 많은 **사실적 지식**이 필요하고 그것은 인문적 교육 없이도 획득가능
- 그러나 책임 있는 시민이 되려면 그 이상의 것이 필요
- “사실적 지식의 연관관계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사실적 지식만을 갖는 것은 거의 무지만큼 나쁜 것이다.”

## 볼로냐 대학(중세대학)

- 대학 역사 : 이탈리아의 볼로냐대학(1088년)- 페포네 (Pepone)와 로마 법학자 이르네리오(Irnerio) 교회법(Canon)과 민법 교수
- 1158년 신성로마제국의 황제 프리드리히 1세 칙령  
이 지역의 학생집단을 자치단체로 공인, 학생들이 도시로부터 독립한 독자적인 공동체를 형성  
신학·철학·의학(세계 최초 해부)  
국가와 도시로부터의 자율성 획득

## 근대대학- 훔볼트의 베를린 대학

- 중세대학이 출판문화의 발전에 따른 제도밖 지식흐름을 수용하지 못하면서
- 국민국가가 지원하는 연구중심의 근대 대학이 탄생
- 실용성과 중세이래의 리버럴아트는 함께 긴장관계를 형성하며 대학교육과 연구의 내용을 형성해 왔었음



## 글로벌 시대 대학의 현실- 붕괴와 몰락?

- 글로벌 즉 자본의 세계화에 따른 세계대학의 공통된 문제
  - - 경제전망, 일자리 전망 없이 **자본에 의해** 직업교육에만 내몰리는 실정
  - - **영어강의 '세계화'**의 불가피한 흐름인가? "사회경제적 동기들이 그 속내를 감춘 채 서로 맞물려 작동한 결과로 강요된 것?"  
"영어의 확산은 '언어의 자유시장'이 초래한 산물이기 보다 '체계적인, 조직화된, 계획된 정책'의 결과"
- = 대학인들은 그들의 비판적 능력을 학문의 내용보다도 영어라는 매개 수단을 익히는 데 쏟아붓고 있"는 역설적 상황
- 비판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가 아닌 수단을 익히는데 매몰

# 일본 국공립대학개혁의 현실

- 일본 국공립대학개혁의 인문학부 폐지에 대해-대학은 주식회사- 총장이 'CEO', 정부와 대기업이 '주주', 수험생과 보호자는 '시장', 산학협력에 의해서 연구자금을 모집, 글로벌경제에 최적화된 戦力을 배출(취업) 시장에 호감을 주면 지원자를 확보, 그러한 영리기업의 발상이 대학에 적용되어 온 것(우치다 타츠루 고베여학원대학 명예교수)
- 교수회의 무력화- 총장에 의한 수직구조

# 탈국가시대의 대학

- 기술, 인터넷 등 과학기술의 변화가 지식의 생산과 유통 등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
- 국가를 벗어난 지식생산이 이루어지는 현실
- 대학은 지식과 인간을 연계시키는 미디어서로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함